

세계최초 「분리형 냉장고」개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裴洵勳)는 세계 최초로 냉장고와 기계실을 분리한 새로운 개념의 「분리형 냉장고」를 개발 곧 상용화할 방침이다.

대우전자가 개발에 성공한 분리형 냉장고는 기존 냉장고 내부의 기계실에 장착하던 냉각팬과 컴프레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냉장고측에는 냉각기만 두고 그외의 사이클 부품은 실외에 설치함으로써 냉장고 방열공간이 필요없어 설치시 벽과의 공간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기계실부 유효용적을 최대화하여 동급 냉장고에 비해 작게는 35L에서 크게는 50L까지 사용공간이 확대되었으며 기계실 부위의 소음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이 큰 장점이다.

LBP용 32비트

마이컴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레이저 프린터(LBP)용 32비트 마이컴을 개발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고 16일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12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최근 개발에 성공한 32비트

마이컴은 프린터에 전송된 데이터가 인쇄되어 나오기까지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부품으로 모든 컴퓨터 명령어를 최대한 단순화시킨 명령어 축약형 컴퓨팅(RISC) 방식으로 설계된 첨단제품이다.

이 제품은 보급용 LBP의 주종인 8PPM(분당 인쇄되는 페이지 수)급으로 특히, 외부 그래픽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시켜 고속인쇄를 가능케 해주는 2개의 그래픽 가속기능 칩(GEU)을 원칩화해 내장함으로써 소형화가 가능하며, 가격도 기존 두개의 칩을 사용할 때 보다 20% 정도 낮다고 삼성 측은 밝혔다.

로봇 제어용 반도체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설비 자동화에 필수적인 산업로봇 제어용 주문형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삼성이 5V 전원전압, 회로선폭 0.8미크론의 설계기술을 사용해 개발한 산업로봇 제어용 반도체는 산업용 로봇·공작기계·공장자동화 설비의 구동장치를 제어하는 핵심부품으로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독점해 왔다.

이 제품은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오는 제어신호를 해독(디코

딩)해 각 블록에 제공하는 신호변환장치부, 입력신호에서 위상제어 신호를 출력해 외부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전원위상제어부, 신호를 해독해 데이터와 사용자의 입출력 데이터를 제어하는 입출력제어부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PCR’ 개발 마우스로 영상편집 척척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PC로 작동하는 VCR 즉 「PCR」(PC controlled VCR)라는 이름의 새로운 복합가전제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년 7개월동안 11명의 연구인력과 4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제품은 PC모니터에 VCR화면을 불러와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VCR의 모든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화면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등장인물의 옷 색깔이나 배경을 바꾸는 등 화면을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화면을 저장·인쇄하며 전송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VCR 화면 일부를 뽑아 반복 재생할 수 있어 어학공부에 편리하고 원도 메뉴화면에 작은 화면을 나타냄으로써 PC작업과 동시에 VCR를 시청할 수 있다.



**컨설팅·설계기술분야
집중 투자 시공·운영·
보수까지 토털서비스**

대우전자

IBS기본기술에 충실하고 각종 기능 등을 다양화해 건물주 및 거주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는 대우전자(대표 양재열)는 시스템사업본부 내에 6개팀 80여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1백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우전자의 올 매출목표는 3백억원, 대우전자는 지능형빌딩 관련 시스템들의 기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컨설팅 및 설계기술 개발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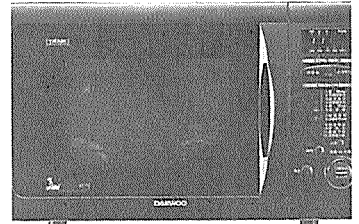
이를 위해 미국 OCSK사·SVE-RDRUP사와 각각 IBS컨설팅 및 설계기술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ISI사와는 통합시스템 개발계약을 맺고 시스템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BAS는 엔도버시스템을 주력 기종으로 삼고 있는데 공조·전력·조명제어·보안시스템이 망라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OS/2를 운용시스템으로 채택하여 마우스만으로도 화면전환 및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이더네트를 기본 네트워크 구조로 채택, 고속데이터교환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변경 및 사용이 간단한다.

전자레인지 신제품

개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요리저울과 요리발열판을 내장, 기본성능을 강화한 전자레인지 신모델 「요리박사」(모델명 KOG-964KS)를 개발했다.

이 전자레인지는 요리할 음식물의 무게를 감지하는 요리저울센서로 히터 작동시간과 온도 및 전자파 출력을 최적의 상태로 제어함으로써 과다한 가열로 인한 음식맛 변질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요리발열판은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조리실 구석구석에 공급하여 음식물이 균일하게 가열되도록 했다.

CT2 무선망 설계

시스템 개발

나래이통

나래이동통신(대표 김종길)이 발신전용휴대전화(CT2)용 무선망 설계시스템 「텔레콤스」개발에 성공했다.

나래이동통신은 도심지역의 CT2 전파환경을 예측해 기지국 설치지역을 산출하는 CT2용 전파환경 예측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자사의 CT2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레이동통신이 개발한 「텔레콤스」는 5천분의 1축척의 기존 전파환경분석 시스템과는 달리 5백분의 1의 대축척으로도 지형뿐 아니라 건물의 위치·높이 등을 고려해 전파환경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레이동통신은 지난 2월부터 서울 중구지역의 전파수신 전계강도를 실측하고 텔레콤스를 통해 전파환경을 분석해 이 지역의 지형·건물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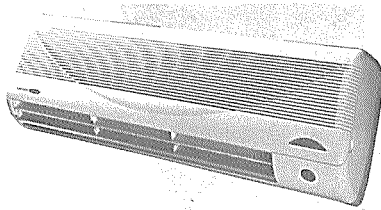
「콤팩트 사이즈 에어컨」 시판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裴洵勳)는 새로운 냉각기를 채용하여 기존 에어컨보다 크기를 줄였음에도 냉방효율을 더욱 향상시킨 콤팩트 사이즈의 에어컨(모델명 DAS-095N)을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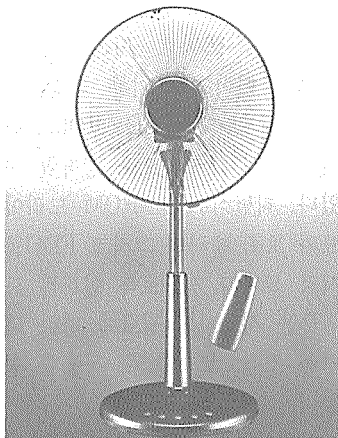
이 제품은 기존 일직선 냉방팬의 냉방효율을 보완한 구부러진 형태의 고압력 언이븐 블레이드팬(Uneven Blade Fan)을 장착하여 30cm이던 에어컨 폭이 28cm로 줄어듬과 동시에 냉각공기의 유로가

짧아져 냉방효율이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위환경과도 어울리도록 인테리어 개념의 디자인을 채용한 콤팩트한 사이즈로 장식의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4단 날개 자연풍 선풍기」 개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裴洵勳)는 4개의 회전날개를 채용, 바람세기는 더욱 강해지면서도 느낌은 훨씬 부드러워져 자연바람에 가까워진 「4단 날개 자연풍 선풍기」(모델명 RFH-1467FR)를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

대우전자 「4단 날개 선풍기」는 강풍일 때의 풍력이 85m³/분, 풍속이 445m/분으로 풍력 52m³/분, 풍속 210m/분인 기존 3단 날개 선풍기에 비해 바람세기가 약2배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세기일 때는 바람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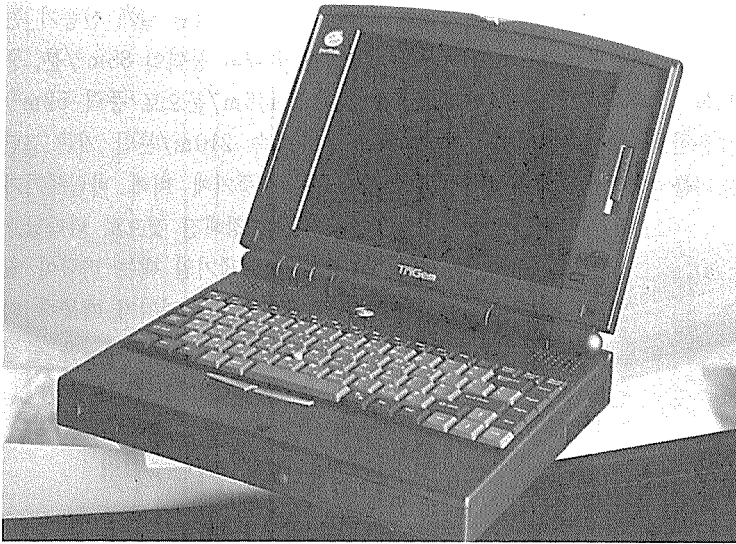
한국형 인트라넷

솔루션 발표

삼보컴퓨터

삼보 인트라넷 솔루션의 구성은 TG SMT 서버 5200DP모델과 윈도NT, 솔라리스X86, 네트워크 SMP 등의 운영체제중 한개를 선택할 수 있다. 웹서버는 운영체제에 따라 Esplanade, 네트스케이프, 네트워크웹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장비는 라우터와 디지털 모뎀(DSU)이 제공되며 100 유저용인트라넷 소프트웨어인 @office 1.0이 번들로 제공된다. 그리고 인터넷게요, 홈페이지 구축 및 인트라넷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2일간의 교육쿠폰이 포함되어 있다. 삼보 인트라넷 패키지의 소비자가격은 2천 450만원(부가세 별도). 여기에 파이어월 2 등의



보안용 패키지와 일러스트라와 같은 WEB DBMS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할 수 있다.

보급형 멀티노트북

‘드림북’ 발표

삼보컴퓨터

신제품 드림북 110DB의 특징은 펜티엄 CPU를 기반으로 CD-ROM드라이브(옵션)와 보조 배터리(옵션), FDD를 착탈식으로 선택 장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제품으로 214만원(부가세 별도)의 저가형으로 설계되었다. 기본 OS로 윈도 95를 지원하는 드림북 110DB는 P54C-75MHz를 탑재했고 기본메모리 8MB EDO Dram에 815MB 하드디스

크를 장착했다.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드림북에는 16비트 사운드카드와 고성능 마이크가 기본 내장되어 있고 FDD 대신 CD-ROM드라이브를 선택 사양으로 장착할 수 있다. 착탈식 CD-ROM 드라이브와 보조 배터리 그리고 FDD를 서로 교체가 가능토록 설계된 드림북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선택사양인 보조 배터리를 채택하면 재충전 없이 사용시간을 2배로 늘릴 수 있고, 필요할 때에만 CD-ROM 드라이브를 부착 사용함으로써 전력소모와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배터리는 무공해로 인체에 해가 없는 니켈수소 배터리를 사용한다. 또한 배

터리에 내장된 스마트 기능은 사용중 배터리의 잔량을 알려준다.

인터넷 전용반도체

사업 본격화

LG반도체

LG반도체(대표 文程煥부회장)는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적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각광받고 있는 “자바언어(Java Language)”를 실행시키는 소프트웨어인 “자바 해석기(Java Virtual Machine)”를 세계최초로 하드웨어인 반도체(자바프로세서)로 개발한다.

인터넷컨텐츠 호텔에서 LG반도체 문정환 부회장과 미국의 선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SUN Microelectronics)사의 체트 실버스트리(Chet Silvestri)사장은 동사가 그동안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여 사용했던 자바 해석기를 97년 상반기까지 하드웨어인 자바프로세서로 개발, 상용화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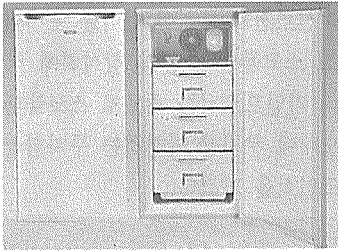
이번 제휴는 세계적으로 인터넷 붐과 함께 표준언어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바의 해석기를 LG반도체가 세계최초로 반도체로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시장의 선발업체로서 향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내에선 전무하다시피 했던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서 큰 의의가 있다.

간냉식 냉동고 개발

대우전자

국내 냉동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대우전자(대표 裴洵勳)는 국내 처음으로 간냉식을 채용한 90ℓ 급의 냉동고(모델명: FFA-0940/가격: 330,000원)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대우 냉동고 탱크’는 냉각기가 냉동고 뒷면에 위치, 그곳에서 차가워진 공기를 팬(FAN)을 이용하여 냉동고 내부로 불어넣어주는 냉각방식으로는 골고루 냉각이 되는 것은 물론 성애가 끼지 않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우전자는 지난해 냉동고 개발에 앞서 실시한 자체 시장조사 결과 소비자의 90%가 값이 비싸더라도 성애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냄에 따라 주로 중대형 냉장고에 적용되는 간냉식을 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냉장고와 냉동고의 냉각방식은 크게 간냉식과 직냉식의 2가지가

있는데, 직냉식은 소형냉장고 및 과거 중형냉장고에 채용했던 냉각방식으로 냉각관이 고내에 달려있어 온도차에 의해 냉기를 전해주는 방식으로 냉각기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성애가 끼기 때문에 쉽게 지저분해지는 등 사용이 불편한 단점이 있을 뿐 아니라 온도분포가 고르지 않아 대형제품의 냉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간냉식은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돼 최근 대부분의 중대형 냉장고에 적용되고 있다.

NEC에 10년간 TV

200만대 공급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裴洵勳)가 일본 NEC에 10년간 5억불 상당의 칼라TV 2백만대를 공급했다.

대우전자는 지난 '86년부터 NEC와 거래를 시작, '88년 14인치 칼라TV 1만대를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89년 16만대, '91년 22만대 등 물량을 늘려오다 '94년부터는 연간 30만대 이상을 공급하는 등 협력관계를 맺은지 10년만에 누계수량이 2백만대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대우전자와 NEC는 이와 관련 최근 梁在列사장과 南貴顯부사장, NEC의 미야와키(MIYAWAKI; 官脇知生)사장 등 양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가나가와

겐의 NEC연구소 STC(Shonan Technical Center)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대우전자가 NEC에 공급하는 물량은 NEC가 일본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칼라TV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92년부터는 29인치 대형TV와 위성방송수신기 내장 TV, 와이드 TV, 카드타이머 내장 TV 등 대형 고급제품까지 포함해 제품을 다양화, 물량 증가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성 수신용 반도체

국내 첫 개발

현대전자

현대전자(대표 鄭夢憲)는 유럽의 디지털 위성방송 표준에 따라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위성방송 수신용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는 이달말에 견본제품을 선보인뒤 6월부터 양산,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반도체는 위성방송 수신단말기인 셋톱박스가 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중 잘못된 신호를 양질의 신호로 바꿔 압축된 화면데이터를 원래 형태로 복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2개 이상의 칩이 필요했던 신호복조, 신호에러정정, 신호원상복구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가능케 해 설계·생산·조립 등 각 과정을 손쉽게 한 것은 물론 위성방송 수신 시스템의 크기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1초에 한글 1천1백25만자를 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 전송통로인 병렬 방식과 직렬 방식을 모두 지원, 다양한 컨트롤러칩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4기가 D램 노광기술 개발 착수

LG반도체

LG반도체(대표 文程煥부회장)가 포항공대에서 “X선 노광기술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4기가 D램 양산의 핵심기술인 방사광 X선 노광기술 개발을 본격 착수한다.

X선 노광기술연구센터는 방사광가속기 전용빌딩 라인과 청정실, 그리고 X선 전용 첨단 노광장비 및 각종 연구장비를 갖춘 최첨단 연구센터이다.

LG반도체는 이번 노광기술연구센터를 가동함에 따라 400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말까지 1기가 D램에 해당하는 0.18미크론(um)의 극초미세 노광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며, 2003년까지는 0.12미크

론(um)의 노광기술을 개발하여 4기가 D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X선 노광기술은 현재 메가급 반도체 개발 및 양산에 사용하고 있는 자외선 노광기술로는 기가급에 해당하는 0.2미크론 이하의 회로를 웨이퍼상에 형상화하기가 불가능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로서 기가급 반도체의 양산제품 개발에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자체개발 취출로봇 CE마크 획득

대우전자

최근 점점 더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장 합리화, 자동화 등 경쟁력있는 생산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대우전자(대표 裴洵勳)는 최근 자체개발 취출로봇에 대해 국내업계로는 최초로 유럽안전규격 CE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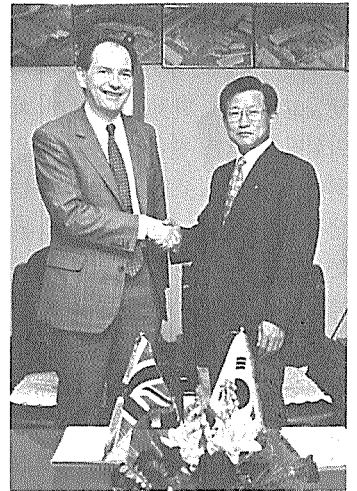
이번에 개발된 취출로봇은 작업 현장에서 시운전 및 검증을 거쳐 사용자의 불편을 개선·보완하여 개발한 튼튼하고 사용이 쉬운 고품질 고속모델로서 독일 튜브(TÜV)사로부터 까다로운 유럽안전규격인 CE인증을 획득, 유럽시장으로 대량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이 제품은 대우전자

프랑스 칼라 TV 공장 등 유럽 현지시장에 설치·가동 중에 있으며 현지의 다사공장에서도 공급주문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현지공장으로서의 수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스코틀랜드에 105억원 규모의 투자 확정

신호전자통신

신호전자 통신이 마이클 포사이 스 스코틀랜드 총리 참석하에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스코틀랜드내에 투자를 확정하는 투자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포사이 스 스코틀랜드 총리에 의하면 신호 테크는 105억원 규모의 컴퓨터 모니터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립

생산라인은 280명 가량의 생산근로자들을 고용할 예정이다.

포사이스 총리는 “이번 신호그룹의 투자결정은 한-스코틀랜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신호테크의 스코틀랜드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스코틀랜드의 발달된 전자 산업을 발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호그룹의 이번 투자결정은 한국기업으로서의 첫번째 대-스코틀랜드 대규모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한국기업들의 잇따른 투자가 따라리라 확신한다”고 발표하였다.

첨단기술전문지

「대우전자기술」발간

대우전자

기술력이 향후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전자(대표 裴洵勳)는 연구소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만드는 기술전문지를 발간한다.

첨단 영상기술과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전자연구본부에 중심이 돼 창간한 4×6배판 크기의 「대우전자기술」(Daewoo Technology Review)은 80쪽 분량에 연구

원들이 기고한 <디지털 인터페이스>, <가정용 VCR의 신뢰성 향상 및 화질보호> 등 최신의 첨단 기술동향이나 연구결과에 관한 8편의 국문 및 영문 기술논문이 수록돼 있다.



디지털 튜너 개발

삼성전기

삼성전기(대표 이형도)는 지난 1년4개월 동안 정보통신 진흥기금을 포함 총1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DSR)용 핵심소자인 디지털 튜너를 자체기술로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디지털 튜너는 보통 보드에 장착해 사용하는 I/Q 신호복조기를 내장한 제품으로 입력주파수 대역폭이 9백MHz에서 2.1GHz로 넓기때문에 한국은 물론 미국·유럽·아시아까지 대응할 수 있다. 크기도 18cc 정도로 소형인데다 5V의 저전압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한점이 특징이다.

PC용 무선네트워크

솔루션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세계 무선LAN(구내 통신망) 표준화기구(IEEE 802.11)의 표준규격을 지원하는 PC용 무선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3년간 50여명의 연구인력과 2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네트워크 케이블 없이 무선방식으로 업무용 PC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솔루션 「매직링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무선LAN시장은 미국 IBM·AT&T·NCR 등이 석권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국제 표준규격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오는 7월이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무선LAN표준화기구의 제정안에 맞춰 무선네트워크 제품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TFT LCD 구동IC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고화질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디스플레이(TFT LCD) 구동IC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패널내의 액정에 전압을 가해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핵심 IC로 화질을 결정하는 출력수가 최대 309까지 가능해 슈퍼VGA급인 26만 컬러(800×600 화소)를 구현할 수 있으며 45MHz의 고속 정보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 저전압(3V) 특성이 우수하고 저항분할 방식으로 LCD를 구동시켜 안정적인 출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내달부터 이 제품을 월 20만개 수준으로 생산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월 50만개 규모로 생산량을 확대하는 한편 노트북PC용으로 생산중인 12.1인치 TFT LCD패널을 본격 채용, 5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릴 계획이다.

CD롬 이용 부팅 주기판 개발

석정전자

석정전자(대표 박재수)는 CD롬을 이용해 부팅할 수 있는 펜티엄 주기판 「SJ-PTM HX」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컴퓨터환경을 통합관리하는 바이오스(BIOS)에 CD롬 부팅이 가능한 기능이 추가돼 컴퓨터를 켤 때 부팅드라이브를 켜

로피디스크·하드디스크·CD롬 드라이브 중 택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PC마다 1~2종의 운용체계에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물리적 한계를 해결,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자나 연구실, 컴퓨터 전문가들이 운용체계별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도스 및 윈도95는 물론 유닉스와 윈도NT 등 다양한 운용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PTM HX」를 싱가포르 크리에이티브사의 비브라(Vibra)16C 칩을 사용, 사운드 블라스터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데다 응용소프트웨어도 사블16제품과 동일하게 제공해 별도의 사운드카드가 필요 없다.

스크린전화기 개발

세원전자

세원전자(대표 홍성범)는 한국전자부품 종합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스마트카드 리더기를 부착한 펜 인터페이스 방식의 스크린 전화기를 개발, 오는 10월부터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약 1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이 스크린 전화기는 기본적으로 음성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신호처리(DSP)칩

을 내장, 자동응답, 팩스 송수신, 통화중 팬 메시지 전송, 개인스케줄관리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전화기에 부착된 스마트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홈뱅킹 및 펌뱅킹서비스·전자지갑서비스·증권정보·홈쇼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비디오 CDP 중국에 수출

신호테크

컴퓨터 주변기기업체인 (주)신호테크(대표 이순욱)는 최근 노래반주시스템을 채용한 비디오 CDP(모델명 SHV-1010)를 개발, 중국에 수출한다.

신호테크는 홍콩의 디지털사와 1차적으로 오는 7월까지 2만대의 비디오CDP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10만대(4백만달러어치)를 디지털사에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으로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 체결에 앞서 신호테크는 지난달 중국 광둥성의 딜러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를 갖는 등 제품 홍보활동을 벌였다.

「SHV-1010」은 버전 2.0짜리 비디오CDP와 노래반주시스템을 결합한 복합제품으로 최대 9,999

곡까지 저장할 수 있다. 특히 폰트를 내장해 한국어·일본어·영어·북경어·대만어·광둥어·스페인어·베트남어·말레이시아어 등 모두 9개국 언어로 된 노래반주 CD타이틀을 즐길 수 있다.

국내 최소형 룸에어컨

개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가 학생공부방·신혼부부방 등에 개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4평형 룸에어컨을 개발하고 시판에 들어간다.

가로길이가 49.9cm로 국내 최소형인 이 제품은 협소한 방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립형 창문 틈새막이와 실외기 설치기를 기본세트로 제공해 벽에 구멍을 뚫거나 창문의 일부를 파손해야 하는 기존분리형 에어컨의 번거로운 설치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실외기를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 빗물이나 습기로 인한 부식을 예방하고 무게를 20kg으로 대폭 경량화했다.

이밖에도 정음설계를 통해 강풍운전시 소음을 도서관 수준인 38dB로, 약풍운전시는 29dB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CCD카메라용 DSP

국산화

LG반도체

LG반도체(대표 문정환)가 새로운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을 채용해 고체촬상소자(CCD) 카메라의 화상처리 IC들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한 고성능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LG가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할 「GCD4101」은 십 만분의 1초까지 제어가 가능한 첨단 전자조리개 기술과 특정 영상신호 상태로 PC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신호 전환기술 등을 세계 처음으로 채용해 종전보다 선명한 색상 재현은 물론 사용자의 편리성에 맞춘 기능들을 새로이 추가했다. 또한 카메라 제어를 위해 별도의 칩을 사용해왔던 AF(자동초점) 기능을 회로설계의 최적화를 통해 AE(자동노출제어)·AWB(자동색 제어)기능 등과 함께 내장하는 등 그동안 CCD 카메라에서 여러개로 구성된 신호처리 및 제어용 IC들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LG측은 설명했다.

대형·고해상 TFT LCD

미 디지털에 대규모

수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는 최근 DEC와 향후 2년 동안 총 1억5,000만 달러(한화 1,200억원) 상당의 TFT LCD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공급할 제품은 노트북 PC업체가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11.3인치 및 12.1인치의 SVGA 및 XGA급 대면적·고해상도 패널로 세계 최초로 0.5mm 두께의 얇은 유리기판을 사용, 경쟁사 제품보다 80g이나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올해에는 월 6천개씩 생산하고, 대면적용 제2라인이 구축되는 내년부터는 생산량을 월 1만 5,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그동안 10.4인치 패널을 생산해 온 LG전자는 이번 공급계약 체결로 대면적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 TFT LCD시장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 대면적용 패널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 VHS방식 VCR

시판

LG전자

LG전자는 최근 슈퍼 VHS방식을 채택해 LDP 수준의 고화질을 구현하는 70만원대 VCR 신제품(모델명 LV-S1000)을 개발, 판매한다.

애칭이 「슈퍼 하이비디오」인 이 제품은 수평해상도가 400본인 슈퍼 VHS 방식으로 해상도가 230본인 일반 VCR보다 화질이 뛰어나며 윤곽 선명회로를 채용해 영상의 윤곽이 또렷하다.

또 VCR헤드가 테이프의 해당 트랙을 정확히 찾아가도록 한 기능과 편집 또는 녹화시 영상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소거 전용헤드를 채용했다.

이 제품은 이밖에 현장감 있는 음질을 즐길 수 있는 하이파이 음성다중스테레오기능과 조그셔틀·자기진단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고 삼페인골드색을 채용해 디자인이 고급스럽다.

64비트 WS 신제품

발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는 64비트 CPU를 탑재한 워크스테이션(모델명 LG스테이션)시리즈를 발표했다.

이 제품은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143~167MHz급 64비트 CPU인 「울트라스파크」와 운용체

제인 「솔라리스」를 탑재했으며 512kB의 외장캐시와 더불어 최대 512MB까지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다.

또 패킷 스위칭방식의 버스 및 그래픽 성능을 높일 수 있는 VIS(Visual Instruction Set)를 채용하고 최대 5개의 SCSI 디스크를 내장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 컴퓨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중형서버 두달만에

27곳 공급

한국 IBM

한국IBM이 지난 3월 국내에 도입, 본격 공급에 나선 신형 중형서버 「AS400」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IBM은 64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인 「파워PC620」에다 64비트 운용체계인 「OS400」을 탑재하고 각종 응용소프트웨어도 64비트체제로 전환된 중형서버 「AS400」이 국내에 도입된 지 두달 만에 총 27군데에 공급된 것을 비롯 현재 세군데에서 추가로 주문을 받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IBM의 한 관계자는 「신기종이 도입되어 단시일내 이같이 공급실적이 늘어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올 연

말까지 최소 100여군데에 신형 「AS400」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체냉매 에어컨 첫

개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는 지난 3년간 총 14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기존의 에어컨용 냉매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22 대신 오존층 파괴성분이 전혀 없는 「수소불화탄소(HFC)-407c」를 사용한 대체냉매 에어컨(모델명 LW-080D)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총 3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발표했다.

LG전자는 대체냉매 에어컨 개발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거의 동시에 대체냉매 냉방기술을 확보했다는 점과 대체냉매 HFC-407c 사용으로 제기되는 냉방성능 및 에너지 소비효율 저하와 소음상승 문제를 컴프레서·열교환기 등 핵심부품 고효율화와 제어사이클 최적화를 통해 기존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